



| 실패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비유입니다. 마르코복음은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마르 4,34)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의 일상 안에서, 사람들의 생활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루카복음 15장은 하나의 주제에 여러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되찾은’ 것들에 관한 것이고 다른 입장에서 보면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교부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감탄을 자아냈던 내용입니다.

세 비유는 공통적으로 되찾음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낯설지 않은 목자를 통해 첫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단지 양을 키우는 직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양 떼와 매일매일의 삶을 같이했던 목자는 양이 좋은 풀을 뜯도록 안내하고, 더위에 지치거나 아픈 양을 걱정하고 돌봐줍니다. 그에게 양 떼는 식구와도 같습니다. 이런 목자에게 잃었던 양을 되찾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 가정으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거의 집에서 생활하며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챙기는 것은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삶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은전을 찾은 여인은 말

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불렀던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복음서의 그 어떤 비유보다도 하느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하느님은 되찾고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잃었던 것들은 이미 하느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원래의 자리를 떠나 다른 자리에 있는, 가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접어든, 하느님 앞에 있었지만 하느님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진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말할 때, 항상 그 바탕에 있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은 애써 잃은 양을 찾는 목자나 온 집안을 살살이 뒤져 은전을 찾아내는 부인이나 집 떠난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분은 애써 찾아 나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되돌아온 이들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주 벌을 내리는 것에 실패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탈출 32,14) 실패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다른 모습은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할 수 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청구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가길 7

청구성당은 2002년 3월 공장 건물 일체를 성당으로 개축하여 2003년 9월 신당동성당에서 분가한 뒤 9월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출범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명칭은 신당6동성당이었으나 2006년 6월 청구성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개축한 성당에서 2005년 5월까지 미사를 봉헌하고, 기존의 건물을 다 헐고 새로 성당을 건축하게 되어 2006년 1월에 기공, 11월에는 입당 미사, 2007년 5월에 축성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